

A. 우물, 생수, 신학하기

1. 사마리아 여인.

- 이방인(사마리아 여인=> 선한 사마리아인, 눅 10:25-37)=> 문제제기. 상종(συγγράομαι, associate, make use of, use dishes in common)치 않다. 나와 생각과 믿음/신앙이 다르면, 함께 생활하지 않는다. 종교/종파/교회간의 문제. 예) Proposition 8; abortion issue
- 앞 장의 니고데모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나, 이방 여인은 예수를 알게 됨=>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하나(요 1:11),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임(4:40-42).

2. 신학 다시하기

- 야곱(이스라엘)의 우물
 - 예수는 야곱(4:12), 아브라함(8:53), 모세(6:32; 9:28-29)와 비교. 그들 (신학)보다 우위에 있다.
 -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(문장구성에서 contrary-to-fact; 알 수 없었다는 말=> paradigm shift의 필요성)=>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조차 모른다고 고발하는 장면.
- 하나님의 선물이란?
 - 요한복음에서는 영생=>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. 세상은 이를 돈, 권력, 명예를 통해 얻는다고 가르침 (지배이데올로기). Q. 다른 방법도 있나? 그렇다면 결과는 마찬가지. 문제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조차, 가능성조차 생각지 않는다는 점.
 - 예루살렘성전도 거라심성전도 하나의 길일 뿐.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일 뿐.
 -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,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(4:15)=> (행복에 이르는 길 혹은 수단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면. 그 수단 때문에 행복을 놓친다면...
 - 네 남편은? (상징적인 말)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힘/가치관은? 다섯 남편은 이스라엘에 주둔했던 다섯 민족, 신 혹은 지배자(왕하 17:24, 30-31)=>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, 그 나라가 심어준 가치관: 앗시리아, 바벨론, 페르시아, 그리스, 로마.
 -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느냐(4:29). 사마리아인(북이스라엘전통)이 유다왕국의 이데올로기인 다윗왕 족속의 메시아/그리스도를 말할리는 없다. 여기서는 모세와 예언자 전통의 그리스도를 말함(신18:15)=> 요 4:19.

B. 신앙생활이란

1. 예수의 신학에 참여

- 하나님의 일=> 예수의 양식? 마태/누가복음에서 예수의 시험(마 4:4; 눅 4:4)
- 신령과 진정의 예배=> 동물제사를 염두에 둬; 교리, 제도(system)와 분리. 신령(영, spirit)=> 보혜사 성령(14:16, 26; 15:26; 16:7)
- 예수의 일에 동참(4:35-38). 아마도 요한공동체의 사마리아 전도.

2. 세상의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

- 당시 로마황제의 직함(title). 예수가 참 지도자라는 말.
- 두 번째 표적. Q. 첫 번째는?=> “유대를 떠나 갈릴리로”(4:2; 54),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.
 - 표적에서 믿음으로.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의 행한 일을 말한 것이 표적이라면, 사람들이 예수와 이틀간 생활하고, 듣고 믿음
 - 왕의 신하(βασιλικός, royal official)의 아들을 살림(백부장, 마 8:5-13; 눅 7:1-10)
 -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(20:29)=> 곧 지금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을 향한 말

----- 생각해 보기

1. 대중 기독교는 기적/표적을 구한다 (cf. 마 12:38-42; 막 8:11-12; 고전 1:22). 기적 혹은 영적 경험을 통해 무엇을 구하나?
2. 예수가 “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다”—이 말을 지금 우리들 경험(문화) 속에서 예를 들면? 그리고 그것이 뜻하고 가르치는 바는?